
수정 사항:

공개란

“ 차 한잔 드릴까요? ”

외관

@dm1720916



흰색의 얇은 긴팔 블라우스, 살짝 팔랑이는 듯한 A라인 스커트는 무릎까지 덮고 있다.

왼쪽 머리엔 직접 만든 악세사리를 착용하고 있으며

연녹색의 머리카락은 갈비뼈를 전부 덮는 정도의 긴 머리였다.

언제나 반묶음. 가끔은 옆머리를 땋기도 하지만 반묶음을 가장 많이 하고 다닌다.

항상 신고다니는 검정색 단화는 굽이 없어 편하게 신고 다닐 수 있다고 좋아한다.

가끔 무도회를 갈 땐 굽이 있는 것을 신기도 하지만 그조차도 낮은 것을 보면 굽이 있는 신발은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듯.

머리카락보다 조금 더 짙은 녹색 눈망울은 처진 속눈썹 사이에서 풀처럼 빛나고 있었다.

순둥한 얼굴과 잘 웃는 성격 탓에 ‘사람 좋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시력이 나쁜 편은 아니지만 일을 하거나 피곤할 땐 종종 은색의 둥근 안경을 쓰고 다니기도 한다.

출처 표기: https://picrew.me/en/image_maker/2435029/complete?cd=JeEGZnTWgF

이름

시모네 라넌 / Simone Ranun

나이

29세

성별

여성

키 / 몸무게

165 cm / 평균

작위

평민

직업

포션 제작자

성격

[온화한 / 유화적인 / 긍정적인 / 탐구적인]

원체 싸움을 좋아하지 않는 탓에 성격이 유순한 편이다.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이나 손님들이 싸움에 휘말리면 나서서 말리기도 하며 큰소리가 나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기에 노래 또한 잔잔한 것이 취향이다.

트라우마가 있다기보단, 잘 놀라는 성격 탓인지 싸움도, 큰소리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싸움을 싫어하는 만큼 화도 잘 내지 않는다. 화가 나는 상황이 와도 본인이 속으로 긍정적으로, 최대한 참으며 상대에게 대응하고 그만큼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물론 시모네 자신도 사람인지라 화를 아예 안내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방에 혼자 들어가서 화를 삭힌다거나 다른 방법들로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일 뿐 화를 아예 안내는 것은 아니다.

타인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면이 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한들 ‘후에는 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사람이든 상황이든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돌려 생각하기 때문에 가끔은 홀로 속앓이를 할 때도 있다.

호기심이 꽤나 많은 편. 그래서인지 물약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즐겨워한다. 재능도 재능이지만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고, 수많은 약초들과 열매 등을 조사하며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을 무척이나 즐기며 가끔은 ‘매니아’ 싶은 면을 보이기도 한다.

평소에는 잔잔한 분위기를 풍기지만 누군가가 포션에 대해 물어보면 눈을 반짝이며 말이 급속도로 많아지는 만큼

자신의 분야를 아끼고 사랑한다. 그만큼 불만도 없고, 벌이도 나쁘지 않을 만큼 벌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직업을 바꿀 생각도, 겸업할 생각도 없다고.

기타

생일

11월 11일

탄생화

흰동백

가족관계

아버지, 어머니

- 외동딸로 태어났기에 따로 형제는 없다. 하지만 가끔은 동생이나 윗형제가 있었으면, 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현재는 다른 지역에서 홀로 거주 중이기에 가끔 편지를 쓰며 연락을 주고 받을 뿐 서로 바쁜 상태라 왕래는 적다고.

취미

찾잎 모으기

- 홍차, 밀크티 등 일이 끝나고 작은 쿠키들과 함께 차를 마시는 것을 즐기다보니 생긴 취미. 주로 향이 달콤한 것을 즐긴다. 복숭아향 찾잎이나 아카시아 등 은은한 단향을 풍기는 것을 좋아하며 다른 찾잎들도 모으고 있는 편. 대량으로 사기보단 10티백 정도를 구매하여 즐겨보고, 취향인 것이 있으면 조금 더 사는 방식이다. 단골 손님이나 지인들에게도 종종 차를 타주기도 하고 직업이 직업인지라 홍차 타는 실력 하나는 끝내준다고한다.

좋아하는 것

홍차, 달콤한 디저트

싫어하는 것

오이

포지션

M

선호/기피

수위 O

캐릭터

선호 : 다정한 플레이

기피 : 브레스 컨트롤, 더티플, 심한 폭력

오너

선호: 기피플 제외 모두 상관 x

기피: 총간, 심한 고문, 골든 제외한 모든 더티플

관계